



중국보다 10배 비싼 광주김치 명품화로 中 고소득층 공략

중국 위생장벽 낮춰...광주김치 세계화 승부수

‘김치 중가’ 광주시가 추진중인 ‘김치 명품화 사업’이 중국 김치 수출 개방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광주시와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의 위생기준당국인 중국 국가위생 계획생육위원회가 지난달 초 자국의 절임채소인 ‘장엔차이’에 대한 위생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중국 당국은 절임 채소에 대해 대장균군 수가 100g당 30마리를 넘지 않도록 요구하던 기존 자체 위생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변경하기로 했다.

김치 등 비열균 발효제품에 대해서는 아예 이렇게 바뀌는 위생기준 자체

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치에 대해서는 대장균군 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그간 김치에 대해 기존의 자국 절임 채소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발효 식품인 김치는 흠에서 난 배추와 양념 등을 익히지 않고 바로 버무려 발효시키기 때문에 갖 담은 ‘생김치’ 상태에서는 대장균군이 남아 있어 중국 내 수출 자체가 불가능했었다.

김치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고는 하지만 국산김치가 저렴한 중국산 김치와의 가격 경쟁을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니다.

중국산 김치는 kg당 500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국산 김치는 6.8배인 kg

당 3400원선에 수출되고 있다. 특히 명품 김치로 유명한 광주 김치는 국산김치 중에서도 kg당 5000원에 이를 정도로 가격대가 높다. 중국산과 가격을 비교하면 10배나 높은 것이다. 광주 김치의 가격이 높은 것은 배추와 무, 고추, 천일염 등 모든 김치 재료를 국산 최상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산 김치가 중국산 김치와 가격 경쟁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중국 내 고소득자 등을 겨냥한 고품질·고가격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광주시의 김치 명품화 정책과 일맥상통한 부분으로, 광주의 김치수출 정책이 대중국 시장 공략의 대안으

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높은 가격 때문에 저조했던 김치수출 실적에 대 중국 시장의 개방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의 김치 수출 물량 2만4741t(8403만달러) 중 광주김치는 18t(14만달러)로 점유율이 0.1%에도 못 미쳤다. 반면 광주로 수입된 김치는 ‘김치중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난해 기준 246t(12만달러)이나 됐다.

남택송 광주시 식품산업 담당은 “품질면에서는 광주김치가 압도적인 만큼 명품김치로 중국 시장을 공략, 광주김치의 세계화를 앞당기는 교두보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황금물고기’ 부세 시험양식 본격 착수

전남도수산과학원, 중서 연구용 물고기 700마리 확보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1년 이상 공 들여온 중국의 부세를 산 채로 들여오는데 성공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이 중국 부세로 중국의 부세 양식기술을 파악해 중국에서 ‘황금 물고기’로 불리는 부세의 독자적인 양식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광주일보 2014년 11월12일 2면>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일 ‘1년여의 노력 끝에 지난 2월 살아있는 중국 부세 확보에 성공, 본격적인 시험양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세는 예전 조기와 비슷한 생김새 때문에 ‘작통 조기’로 불리며 명절 때마다 주부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어종이다. 그러나 최근 바닷고기를 즐기기 시작한 중국인들이 명절 산물용으로 찾으려는 제주산 부세가 1마리당 81만 원까지 형성되는 등 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과학원은 부세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전략 수출 유망품목’으로 선정, 국내 최대 굴비 생산자인 영광군의 협력을 받아 국내 첫 시

험 양식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진어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 중국에서 들여온 부세는 약 400~500g의 암·수 700마리 내외로, 장시간 이동에 따른 외부 상처 치료와 안정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축적된 참조된 양식기술을 활용해 부세 진어의 포란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부세 치어 20만 마리 생산을 목표로 연구진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내 소비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 대비 32.1% 상승하는 등 양식 부세의 중국 수입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양식 개발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부세는 민어과 조기속에 속하는 온수성의 회유성 어종이다. 우리나라의 서남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2013년 약 190t(생산 금액 21억원)에 그쳐 대부분을 중국 수입(9130t·400억원)에 의존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지역 문화융성’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2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2015년 지역문화융성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문화 융성”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인기로 불법 조업선박 단속

정부 177억 투입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과제 14개 발표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불법 조업선박을 단속하고 국지성 해안 재난에도 신속히 대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1차 과제 14개를 발표하고, 이들 사업에 총 17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조업 선박을 가려내기 위해 ‘무인기용 선박 식별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개발한 시스템은 유인기에 장착해 실효성을 검증한 뒤 실제 무인기에 달아 단속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재난대응 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해안 범람 지역이나 붕괴된 해안 도로에 무인기를 투입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무인기로 촬영한 영상 및 적외선 센서 이미지를 분석해 병으로 말라 죽은 소나무를 찾아내는 사업도 추진된다. 무인기를 통해 취득·분석한 정보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제공돼 지방자치단체의 방제 사업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전남도민 100명중 2.3명은 외국인

매년 6% 증가 4만3828명...영암 거주·베트남 국적 ‘최다’

전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매년 6% 이상씩 증가하면서 100명 중 2.3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주민 자녀 수도 1만2000명을 넘어섰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현재 전남도내 거주 외국인 수는 4만3828

명으로, 시·군별로는 영암이 5232명으로 가장 많고 여수(4994명), 목포(3958명), 순천(3360명), 나주(3069명), 광양(258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구가 많은 시를 제외하고, 영암군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이유는 대불산단단

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2812명)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1만2245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중국(7127명)과 중국이 국적이지만 한국계(6479명), 필리핀(4334명), 캄보디아(2802) 등의 순이었다. 전체 외국인 가운데 근로자가 1만3074명이었으며, 외

국인 자녀도 1만2832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었다. 결혼이민자는 6830명, 혼인귀화자는 388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도내 외국인은 지난 2012년 3만9006명에서 2013년 4만1340명 등으로 4822명이 늘었다.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6% 이상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4일부터 6월30일까지 2015년 전남도내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靑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에 목진요 교수

목진요(46) 연세대 디자인예술학부 교수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예술감독 겸 창·제작 센터장에 임명됐다. 목 선임 예술감독은 문화전당 5개원 가운데 하나인 문화창조원의 창·제작센터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전시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을 기획·구현하는 업무를 맡는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목 선임감독이 문화전당이 지향하는 예술과 기술 등을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등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



다. 목 예술감독은 홍익대를 거쳐 뉴욕대학교에서 인터랙티브 텔레커뮤니케이션학을 공부했으며, 아리스 일렉트로닉스, 휘트니 미술관, 뉴욕 첼시미술관 등에서 뉴미디어아트 부문 전시 및 페스티벌,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임기는 2년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전층 안과병원운영

6/7층 라식센터
4/5층 수술센터
2/3층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로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 +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문암동 방면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